

김동진

교수

변리사시험대비
강의계획서

민법

중급강의

- 기본강의를 수강하여 민법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강의합니다.
-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해를 도모하는 강의입니다.
- 2020년 5월 실시된 변리사시험에서도 민법 공방 1권으로 빠진 내용 없이 100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 출제 가능한 내용들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기 위해 더욱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일 정

2020. 7. 1(수) ~ 8. 11(화), 오전 월~금 강의, 총30회
오전 9시30분 ~ 1시

교 재

• 민법공방(저자, 제3판)
+ 보조자료(제공)

수 강 대 상

민법 전반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수험생들
(즉, 어떤 기본강의라도 1번 이상은 수강하신 분들)

강 의 특 징

1. 보조자료 소개

2020년 1월에 진행된 기본심화강의의 필기노트를 필요한 내용들만 재편집을 하여 보조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조자료를 준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0회라는 시간동안 민법총칙부터 채권법 끝까지 어느 한 부분도 날림 없이 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모든 내용들을 알차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즉, 보조자료를 이용하여 최대한 판서하는 시간 등을 절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약된 시간을 내용 설명에 활용하여 완성도가 더 높아진 중급강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민법은 정확하게 이해를 한 후 거듭 반복하면서 회독수를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심화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은 중급강의 시간에 보조자료를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반복이 될 것입니다.

2. 예습과 복습

가. 예 습

(1) 기본심화강의 수강하셨던 분들

기본심화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은 이미 「민법공방」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습 단계에서 진도 범위만큼 밑줄 위주로 1회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1회독을 하다보면 밑줄이 있는 내용이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샤프 등을 이용하여 연하게 그 내용 옆에 ? 와 같은 표시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그 ? 표시가 있는 부분을 설명할 때에는 더욱 집중해서 듣고 제 설명을 본인만의 언어로 간략하게 메모하여 다시 민법공방을 회독할 때에는 막히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2) 기본심화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셨던 분들

진도 범위만큼 아주 가볍게 1회독, 즉 “오늘 강의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민법공방으로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께서는 복습 쪽에 더욱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나. 복 습

(1) 필 수

당연히 당일 강의한 내용을 「민법공방」 및 「필기노트」 등을 이용하여 확실하게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착각을 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당일 복습은 수업시간에 설명을 들은 직후이므로 수월하게 이해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에 해당합니다. 한 번 읽고 이해가 된다고 넘길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내용을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본인의 지식이 됩니다.

강 의 특 징
(2) 임 의

문제풀이를 병행해야 하는가? 라는 쟁점은 견해가 대립됩니다. 중급강의를 수강하면서 진도만큼 문제집을 같이 푸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만의 확실한 의견이 없는 분들께서는 다음 저의 글을 읽으시면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①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집 풀이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냉정하게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민법총칙까지는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고도, 여력이 남아 문제풀이를 성실히 잘 이행합니다. 그러다가 물권법 중반 이후부터는 수업을 듣고 복습만 하는 것도 벅찬 상태가 되어 문제풀이를 도중에 그만 두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문제풀이를 포기하실 분들은 처음부터 문제풀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지 못할 일은 벌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② 공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즉, 시기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9월까지의 기본서를 계속 반복하면서 내용을 익히고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할 것에 해당합니다. 문제풀이는 10월 이후에 하여도 충분하며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리사 민법 시험 문제 자체가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문제풀이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 ③ 기출문제풀이를 중급과정에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기본서의 강약조절입니다. 즉,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타당한 주장입니다. 다만, 「민법공방」은 이미 변리사시험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출제된 내용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충분히 강약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급강의 시간을 통하여 이 부분은 단순 조문이 잘나온다 혹은 사례형 문제가 잘 나온다는 식으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강약조절을 위해서 기출문제를 풀고자 하신다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④ 만약 문제를 풀고 싶으시다면 「아주 자세히 풀어낸 Q 객관식 민법 사례」라는 교재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한국산업공단에서 출제한 다른 영역의 민법 기출문제들 중에 사례문제만 추출하여 자세히 해설을 한 문제집입니다. 거기서 출제된 쟁점들이 변리사시험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으므로, 워밍업을 하는 느낌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 많지 않으므로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 ⑤ 문제집 풀이를 병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분들은 「민법공방」의 복습을 누적적으로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즉, 당일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민법 처음부터 오늘 배운 내용까지 다시 한 번 빠르게 속독하면서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누적적으로 복습을 하면 10월 쯤 가면, 민법공방 1회독하는데 1주일이면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민법 때문에 마무리 과정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